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여 교통하여라

본 문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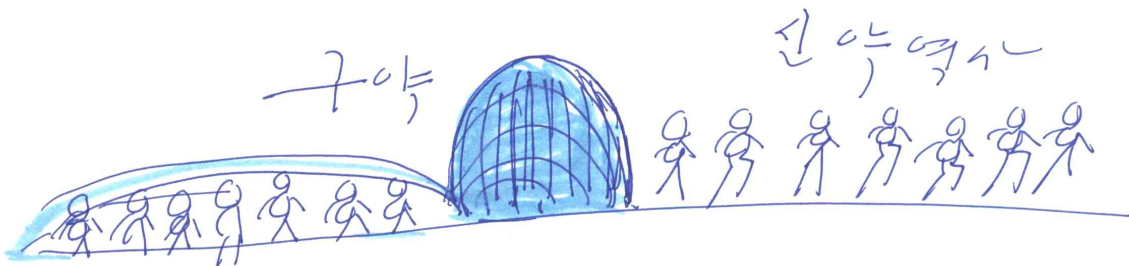
이번 주 주일말씀에 이어서 성자와 개통, 분체와 개통, 형제와 개통하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두 존재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통하여 교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자체적 발전밖에 안 되고 얻는 것도 적습니다. 타 민족과 무역을 하듯이 개통해야 상대로 인해 서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얻게 되어 하는 일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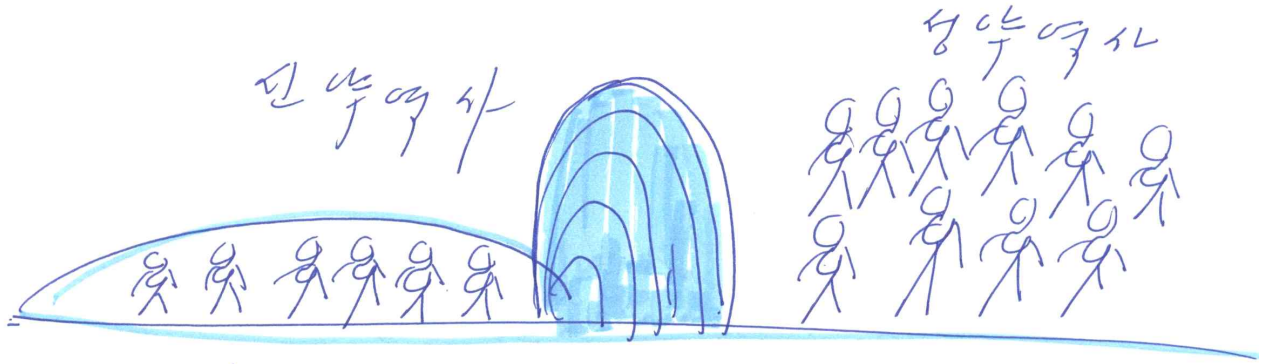
★ 발전하고, 차원을 높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개통과 교통과 소통’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체 주관에서 끝나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구약역사는 신약과 개통을 못 해서 구시대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역사가 자자손손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약역사로 온 자들은 새로운 새 역사와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들과 이방인들과 개통했습니다. 고로 발전하고 부흥되어 시대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약역사는 이 시대 새 역사인 성약과 개통을 못 해서 구시대에 머물게 됐습니다. 성약역사로 온 자들은 성자와 그 분체와 개통하여 교통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들과 이방인들과 개통했습니다. 고로 발전하고 부흥되어 시대 중심 종교가 되었고, 역사를 펴 나가게 되었습니다.



월명동도 개통되지 않았으면 가시덤불과 잡초 동산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명을 맡은 주인공이 먼저 하늘과 개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은 새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대 자연성전이 되었습니다. <끝>



이와 같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자 주님과 그 분체와 소통함으로 개통되어야 이상세계가 됩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벌리고 기본 제스처 하다가, '개통'할 때 양손을 합친다)

개통되었을 때와 개통되지 않았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개통이 안 되면 사망권입니다. 구시대 삶입니다. 개통하면 생명권입니다. 희망의 새 삶이며, 희망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개통이 안 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상대를 통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모릅니다. 고로 상대를 통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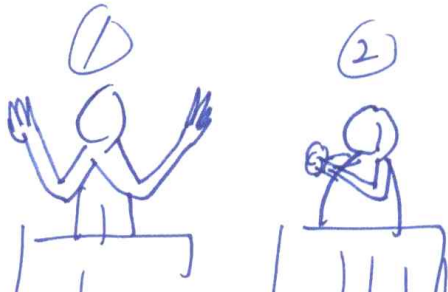
구원자와 소통이 안 되면, 사탄이 사탄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성자와 소통이 안 되면 영적이지 못합니다. 영혼이 시들어 갑니다. 구원자와 성자와 개통하고 소통할수록 얻게 되고, 그로 인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자기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주님과 개통이 안 되니,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 머릿속에는 생명의 말씀도, 지혜도, 지식도, 축복도 한정돼 있습니다. 고로 자기 자체로만 하면 하는 일이 한정되어 아주 작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자와 개통해야 무한정으로 영원까지 연속되어 살게 됩니다.

성자 주님과 제대로 개통하여 교통해야 됩니다. 일부만 하고 말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완전히 개통하면 신령하고 깊고 높은 것을 얻습니다. 말씀도 얻고, 계시도 받고,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고, 기

적이 일어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소원이 성취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자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 육도 영도 근본적으로 휴거되고, 성자와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성자 주님과 개통했어도 마치 한 차선만 개통하듯 한 자들은 어서 부지런히 자기 책임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행함으로 완성하여 나머지 차선도 개통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꼭 개통해야 됩니다.

(‘개통해야 된다’ :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벌리고 있다가 합친다)

때가 있습니다. 성자 주님이 엄히 명하셨습니다. 성약의 독립의 해인 2013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개통’ 이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개통이 안 되면 파리와 모기만 날립니다. 개통이 안 되면 사랑의 세계가 깨집니다.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썩어 버립니다.

개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자 주님과 개통이 안 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개통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개통, 말씀 깊이 듣기 개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삶 개통, 십일조 개통, 감사생활 개통, 자기 사명 개통, 사탄 주관 안 받고 주 뜻대로 살기 개통, 게으름을 벗어나서 부지런하기 개통, 열심 내기 개통, 짝사랑을 벗어나는 성자 주님과 사랑 개통, 의논 개통, 진리 개통, 말하기 개통, 진리 외치기 개통, 잠언 깨닫기 개통, 생명 구원 개통입니다. 그리고 섭리세계 각 나라끼리 개통, 교회끼리 개통, 부서들과 개통, 교역자와 교인들과 개통, 지도자와 상대자와 개통, 영과 육의 개통입니다. ‘오직 성자 주님과 개통’ 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개통한 후에는 ‘분별, 판단, 검토, 검사’ 입니다. 개통하고 나서 아무것이나 막 받아들이지 말고, 무역을 하면서 물건을 검사하듯이 개통한 후에는 자세히 보며 무엇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검사해야 됩니다. 고로 자기중심이나 자기 의지로 흐르지 말고, 사탄의 주관으로 흐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3>

<성자의 말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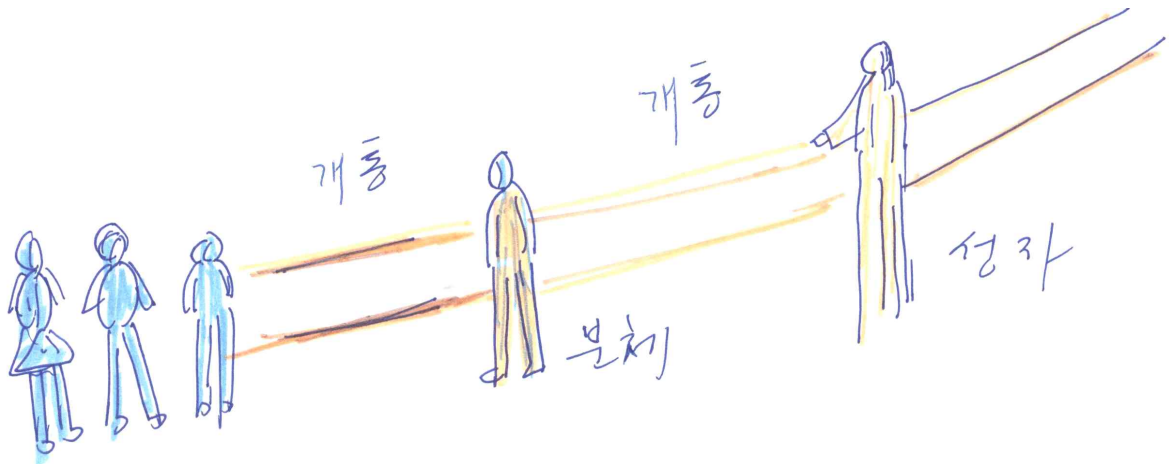
축소해서 ‘지체’ 로 비유해서 보자. 사람의 각 지체는 서로 일체 되고 개통되어 작용을 한다. 만일 각 지체가 개통이 안 되면, 그 지체는 불구가 되고 병들게 된다. 너희도 이와 같다. 서로 개통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그런 지체는 건강한 지체들이 개통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스도 성자는 머리다. 나의 분체는 머리다. 너희 형제끼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이다. 고로 각 지체는 개통하여 서로 통해야 된다. 또한 항상 머리와 교통해야 된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할 것을 하게 된다. 각 지체가 서로 개통하여 일체 되어 교통하고, 지체와 머리가 개통하여 서로 일체 되어 교통하면서 나 성자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

혼자 고립되면 절대 사탄의 침범을 받고 사탄이 노리는 영혼의 사냥감이 된다. (혼자 고립되어서 사냥감이 되는 모습 표현) 너희 자체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고, 시대 신부의 뜻을 펼 수도 없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휴거도 안 된다.

나 성자와 교통하려면 나의 육인 분체와 개통하고 교통해야 된다. 온전히 개통돼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에서 각 지체에게 명하듯, 나 성자도 너희에게 그리한다. <끝>



‘개통하라’는 말을 놓고 깊이 기도하여라. 너희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여라. 개통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라. 나 성자와 ‘사랑 개통’ 안 되면 만사에 열심히 해도 곤고한 것이다. 각 분야마다 개통이 안 된 것을 찾아서 꼭 개통하도록 하자.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개통해라. 개통해야 진수성찬이다. 개통하지 않으면 굶주린다. 개통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도 힘들게 연속된다.

‘7만 선교’를 위해 각 교회의 황금어장을 개통하여라.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행하여 완공하여 개통해라. 그래야 2013년부터 질주하게 된다. 아무리 2013년에 축복을 준다 해도 너희가 개통할 것을 개통하지 않으면,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전진할 수 없다.

터널을 개통하지 않으면 다닐 수 있겠느냐. 터널을 완공하지 않았는데 개통할 수 있겠느냐. 터널을 개통하려면 1차로 쌓인 흙을 파내고, 2차로 돌과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고, 3차로 돌을 치우고 터널을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이 고생돼도 몸부림치며 부지런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너희 육과 영을 온전히 만들어 개통하여라. <끝>



내가 허락했어도 너희가 할 것을 완성해야 휴거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세계로 휴거가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른손 검지를 하늘 높이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힘차게 부르짖는다)

선생과 조은 목사와 범석 목사같이 엄청난 일을 하며 몸부림치라. 누가 쉽게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안일주의자들이다. 너희 선생은 일하면서 매일 큰 한숨을 내쉰다. 상상도 못 하는 일이다. 그 상대가 되어 그 수준에 맞춰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들같이 하여라. 자기 위치에서 그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좋은 휴거를 이룬다. 그 차원에 있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받아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작품을 완성하는 자들을 보아라.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어 가면서 기어이 한다. 고로 계절과 때가 지나가기 전에 관객들에게 보여 주어 얻을 것을 얻게 된다. <끝>

어서 너희 육과 영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개통하여라. 온전히 만들어야 개통할 수 있다. 온전히 개통한 자만 그 육도 영도 최고 높은 차원으로 휴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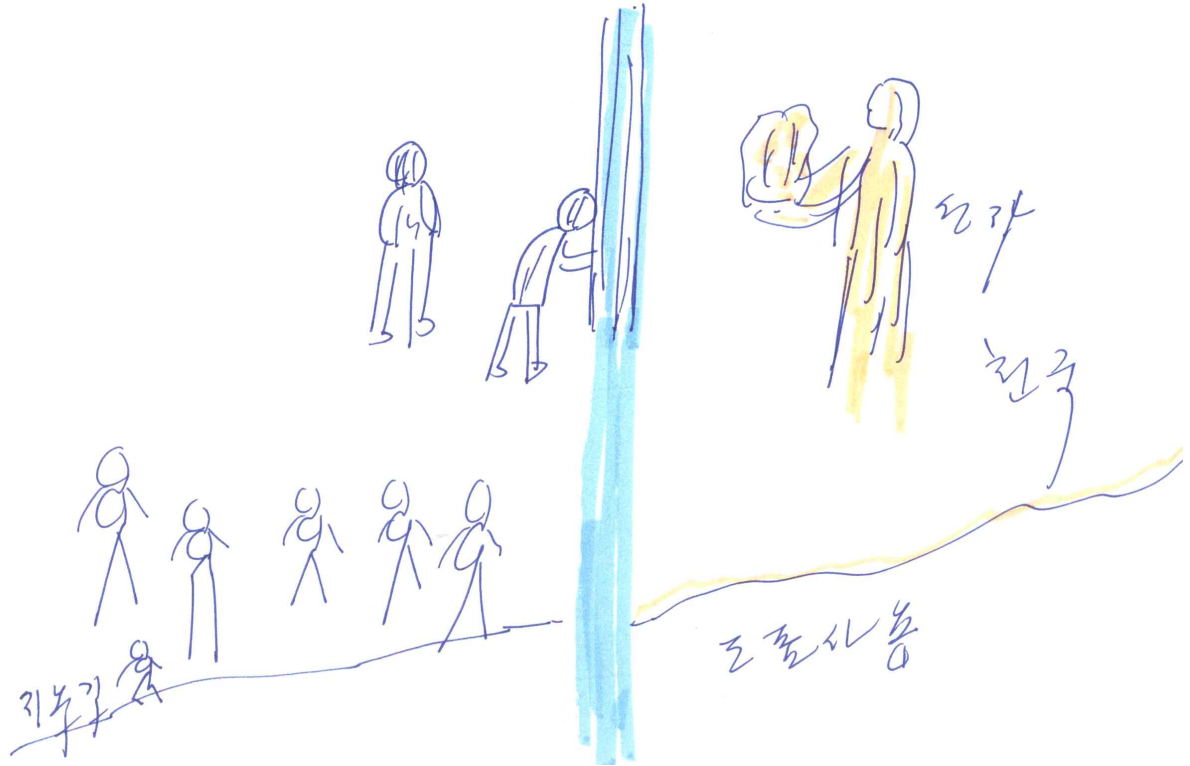
차원 높게 섭리를 뛰고 달리며 나의 양떼들을 치는 자들을 보고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휴거 되느냐.”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상상으로 말하지 말아라. 자기 주관으로 말하지 말아라. 열심히 몸부림치며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역사를 위해 고생하면서 휴거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은 충성자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로서 곧 나를 거스르는 말이다.

이 말씀을 하나의 수요 설교로만 듣지 말아라. 너희 모두에게 지시하고 계시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미 10월에 준 말씀인데, 몸부림치는 자를 거쳐서 정리되어 너희에게 이제야 왔다. 설교로 전해지려면 한 달이 걸린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너희는 한 달 늦게 들었으니, 말씀을 듣는 대로 빨리 행하여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나 성자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도 너희가 나와 개통이 안 되어 있으면, 통하지 못하여 매일 받을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개통될 때까지 지옥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 곤고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전갈이 쏘는 고통을 받게 된다. 사탄과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

<끝>



역사적으로 보아라. 시대마다 하늘이 보낸 자와 개통하지 못한 자들과 그 시대는 무덤 속에서 사탄의 고통을 받으며 살지 않았느냐. 힘들어도 그 시대 하늘이 보낸 자와 개통한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너희는 이 시대 구원자를 눈으로 보고 같이 살면서도 적당히 개통하고 사느냐. 내 분체와 개통하고 사는 자와 제대로 개통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그 육이 지상에서 살 때도 차원이 다르고,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살 때도 차원이 다르다.

눈으로 보고 같이 쓰고 살면서도 못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못 한 자는 결국 갈일이 되어 버린다. 하는 자들은 보아라. 몸부림도 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느냐.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네 선생은 어렸을 때도 나와 개통하기 위해 환경을 옮겨 가면서 긴긴 세월 동안 산속에서 연단받지 않았느냐. 편하게 되는 것이 없다. <끝>

선생 따라 하는 자는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기 식으로 가볍게 하는 자는 별로 힘들지 않다 한다.



힘들지 않게 하는 자는 작은 집을 짓는 자요, 힘들게 하는 자는 궁궐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작은 집을 짓는 자’ : 양손을 합쳐서 작게 표현)

(‘궁궐을 짓는 자’ : 양손을 머리 위로 들면서 크게 표현)

힘들게 섭리를 펴며 힘들게 휴거를 이루는 자들은 이를 깨닫고 나 성자가 주는 힘을 받고 힘내라!

한 번 개통해 놓으면 얼마나 좋으나.

한 번 개통해 놓으면 계속 행하는 대로 얻게 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나 성자와 제대로 개통하여 교통하지 않고, 사랑도 모든 것도 세상과 개통하여 교통하는 자들아. 나 성자를 외면하고 내 분체를 외면하고, 이미 심판받은 사탄과 악의 세계와 개통하여 교통하는 자들아. 연말 심판이 있으니 어서 회개하여라. 네 죄가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죄가 자기 육과 영을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

왜 사랑의 배신자가 되고, 섭리사의 배신자가 되느냐. 알고도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죄를 다스리면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라. 지금은 재림 때라서 나의 법이 엄하다. <끝>

사탄이 얼마나 이성으로 피고, 세상 사람을 통해 섭리 사람을 피어 섭리사를 저버리게 하는지 진정 깨달아라. 점검해야 된다. 검사해야 된다. 문단속해야 산다. 죄의 문을 열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구원자를 따라야 된다.

구원자라도 항상 십자가를 져 주는 것이 아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 네 선생을 계속 거기에 있게 두겠느냐. 이제 너희 죄의 짐은 너희가 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때는 찢값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깨달을 것이다. 찢값은 전갈이 쏘는 듯하다.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다. 구원자를 소홀히 여기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가다가 벌판에 내려놓고 걸어오라고 하며 그냥 간다. 고로 겨울철의 추위가 영과 혼과 육에게 다친다. 고로 지금 온전히 만들어 개통하여라.



불의를 경히 여긴 자는 불의가 자기를 칼질한다.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머리를 찢는 모습,
자기 가슴을 찢는 모습)

내 사랑하는 신부를 괴롭히면 나 성자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개인이나 민족이나 지난날을 보아라. 너희는 개인 구원을 얻는 자들이고, 나의 육인 분체는 온 세상을 구하는 데 쓰이는 자다. 고로 당세에 사는 자들과 후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기에 나 성자가 너희를 대하는 것과 내 분체를 대하는 것이 같지 않다.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아.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너 자신이 건널목의 신호등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생명의 날벼락이 닥치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말을 전하는 나의 분체를 소홀히 여기고 배척하는 자는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이 심판받아 흑암에 가 있고,

어떤 영은 한 시대가 가도록 흑암에서 못 나오기도 한다. 나 성자와 진정 소통하고 개통해야 산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심각한 말씀) 내 말을 저버리고, 내가 보낸 구원자를 저버리는 자들은 자기 영을 사망에 내던지는 자들이다. 거기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사는지 아느냐. 그로 인해 그 육이 더욱 괴롭고, 하는 일이 안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성자다. 살롬!

<마지막 자막> ‘개통과 교통과 소통이다.’

‘개통한 후에는 분별, 판단, 검토, 검사다.’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여 교통하여라.’ <끝>

생명의 말씀 7번 읽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